

[큐티상담칼럼 3] - 목상은 '성도의 본능'입니다

라채광 집사 / 2002

때가 되면 불가사의한 힘으로 대양을 넘어가는 철새나, 다 자란 후 알을 낳기 위해 어김없이 어머니의 강으로 돌아오는 연어를 보면서 사람들은 창조의 신비에 감탄합니다. 이것을 본능이라고 말하고 동물들에게만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이라는 말은 '동물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면서 천박한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본능적이기 보다는 지성적이어야 하고 그래야만 성숙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물론 동물적 본능 속에는 사람들의 공동체에는 불필요한 공격성, 맹목적 이기심, 불합리한 탈 사회성 등이 숨어 있어서 공동체에 해악을 줄 수도 있지요. 그래서 경계를 해야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본능 자체는 순수합니다.

지성과 훈련은 본능 위에서 자란다

요컨대, 살아 있는 모든 생물은 이른바 '본능'이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목상합니다. 그러한 목상성향은 신앙의 본능입니다. 목상형태가 말씀읽기, 암송하기, 생각하기, 감동하기, 반성하기 등의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된 것일지라도, 어쨌든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리워 합니다. 그 경향에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 방법이 문화의 영향을 받을 지라도 살아 있는 신앙인은 반드시 목상을 합니다. 삶의 모든 희노애락을 넘나들면서 목상합니다. 성경이 그들의 중심을 효과적으로 지배하는 사람들은 더욱 강렬하고 더욱 생생하게 목상을 유지합니다. 중심이 뜨거운 사람은 한시도 하나님께 감동되지 않는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능적이라고 지성적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어미까치 날개가 다 자란 새끼까치를 비행훈련시키는 관경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육동기와 방법은 본능이 시킨 것일지라도 그 과정은 일련의 지적 과정이었습니다. 우등생으로 졸업한 새끼가 있는 반면 비실비실한 새끼도 있지만, 어미의 안타까워하는 본능으로부터 우려나온 지속된 자극과 훈련을 통해 결국 대자연 속에서 훌륭하게 생존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성과 훈련이 본능이라는 바탕 위에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목상하려면 성경 안에서 살아야

그러므로 목상이 잘 되려면 먼저 성경 안에서 살아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그

속 깊이 영접하며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성도는 앙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서서히 성도의 영혼이 살아나면 본능적으로 목상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본능 위에 성숙을 위한 큐티훈련이 건설된다면 필시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 조용한 시간에 제 영혼을 깨우는 본능의 소리를 듣습니다. 마음을 감동하는 그 진동을 느끼며, 찬양과 목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 동안 말씀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제 영혼에 쏟아부으실지요!

“제 속에 있는 모든 본능과 지성이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 출처 : 온누리신문**